

[서평]

에릭 포너, 『불길 속의 시련: 아브라함 링컨과 노예제도』

The Fiery Trial: Abraham Lincoln and American Slavery. By Eric Foner. (New York: W. W. Norton, 2010. xxii, 426 pp.)

이형대

(University of Maryland University College, Asia)

2010년에 출간된 『불길 속의 시련: 아브라함 링컨과 노예제도』에서 저자인 에릭 포너는 “링컨의 반(反)노예제도 사상 및 정책의 발전”을 고찰한다.¹⁾ 콜롬비아 대학의 좌파 역사가답게 포너는 이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링컨의 반(反)노예제도 사상 그 자체보다는, 그의 사상과 정책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당시의 사회적·역사적 문맥 속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그는 링컨의 일생을 통해 노예제도에 관한 링컨의 반대 입장과 사상이 언제, 어떻게 수립되고 발전되었는가를 고찰하면서도, 그 해방 정신을 링컨 개인의 탁월한 정신과 사상에게서가 아니라 그를 둘러싼 여러 세력의 힘과 그로부터 나오는 급진주의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링컨의 반노예제도 사상과 정책을 이해하는 이러한 좌파 역사가의 역사서술에서 나타나는 강점은 무엇이며 또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1) Eric Foner, *The Fiery Trial: Abraham Lincoln and American Slavery* (New York: Norton, 2010), p. xv.

저자 에릭 포너는 1982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1943년 뉴욕시에서 태어났고, 50년대의 매카시즘 시대에 유년기를 보냈으며, 1960년대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학부와 대학원을 마친 후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링컨을 혹평한 바 있었던 리처드 호프스태터(Richard Hofstadter)²⁾의 지도하에 완성한 그의 박사학위 논문, 『자유토지, 자유노동, 자유인: 남북전쟁 이전 공화당 이데올로기(*Free Soil, Free Labor, Free Men: The Ideology of the Republican Party before the Civil War*)』는 1970년에 책으로 출간되어 호평을 받았다. 이 책을 출발로 포너는 남북전쟁과 재건 시대에 대해 천착을 계속하며, 미국역사에서 자유와 해방의 의미를 규명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³⁾ 좌파 역사가로서 그의 역사관은 언제나 분명하다. 즉, 역사의 동력은 민중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는 미국역사에서 노동자, 흑인 및 여성이 해 온 역할에 주목하며 그와 같은 민중의 능동적인 힘을 역사의 중심에 놓고, 말하자면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써 왔다. 그리하여 미국역사를 서술함에 있어서 그는 미국문명을 흐르고 있는 자유주의의 정신보다는 급진주의의 작용과 역할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다.

이러한 포너의 관점은 『불길 속의 시련』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책의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인 9장에 이르기까지 링컨의 사상은 포너가 서술하는 여러 세력에 의해 형성된 문맥의 힘에 의해 끊임없이 바뀐다. 무엇보다도 먼저 포너는 1830년대에 정치를 시작한 링컨의 노예제도에 관한 입장은 1840년대까지 북부 휘그당의 주류와 같은 것이었다고 지

2) Richard Hofstadter, *The American Political Tradition: And the Men who made It*(1948, New York: Random House, 1974), pp. 118-174.

3) 에릭 포너의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Free Soil, Free Labor, Free Men: The Ideology of the Republican Party before the Civil War*(1970), *Tom Paine and Revolutionary America*(1976), *Nothing but Freedom: Emancipation and Its Legacy*(1983), *Reconstruction: America's Unfinished Revolution, 1863-1877*(1988), *The Story of American Freedom*(1998), 그리고 *Forever Free: The Story of Emancipation and Reconstruction*(2005) 등이 있다.

적한다. 즉, 노예제폐지론자들과는 달리 점진적인 해방을 지지하는 온건한 입장에서 노예제도와 그 제도의 확대는 비판하였지만 그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라든가 이에 상응하는 어떤 연방정부의 조치도 반대하였다는 것이었다. 또한 당시 휘그당을 이끌었던 헨리 클레이(Henry Clay)의 흑인이주정책(colonization)을 지지함으로써 흑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링컨은 도덕적으로만 노예제도를 반대했지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수용하였고, 흑인을 미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반대했던 것처럼 보인다.4) 이러한 링컨의 입장은 클레이가 주로 활약하여 성사된 ‘1850년의 타협안’에 대해서도 잘 드러난다고 포너는 주장한다. 즉, 그 타협안에 포함되어 있는 ‘도망 노예법’은 링컨 자신의 도덕적인 입장과 분명히 달랐음에도 지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1854년에 통과된 ‘캔자스-네브래스카 법’은 당시까지 링컨이 보여주었던 모든 입장을 바꾸어 놓게 되고, 그의 반노예제 사상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에도 링컨은 그 새로운 법이 노예제도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1820년 북부와 남부 간에 맺어진 ‘미주리 타협안’을 실질적인 의미에서 무력화시켰음에도 곧 바로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라, 기존의 휘그당 대신에 새로운 공화당이 완전히 진용을 갖추고 창당될 때까지 입장표명을 유보하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을 보여 주었다고 포너는 지적한다. 그렇다면 링컨은 언제 모든 흑인을 백인과 똑같은 자유 시민으로 보기 시작했는가? 그것은 1864년에 가서야 가능했고, 그것도 “북부 여론의 광범한 경향”을 반영한 결과,5) 다시 말해 노예제폐지론자들, 급진적 공화당원들, 자유흑인들 및 해방 흑인들의 요구와 압력에 의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링컨 개인의 사상을 광범한 문맥 속에서 고찰하는 포너의 연구방법은

4) Eric Foner, *The Fiery Trial*, p. 60.

5) *Ibid.*, p. 288.

치밀하다. 그는 이 책의 1장을 1864년에 링컨이 노예제도에 대해 표명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면서 시작했다. “나는 천성적으로 노예제도를 반대한다. 노예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지 않은 때를 나는 기억할 수 없다.”⁶⁾ 포너는 이러한 링컨의 입장이 삼십 여 년 전 그가 정치를 시작할 때의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여기까지에 도달하는 데는 무수히 많은 외부적 요인들이 작용했다는 것을 책 전체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링컨의 반노예제도 사상이 노예를 해방시키는 선언으로 결실을 맺고, 그가 마침내 흑인을 백인과 똑같은 평등한 시민으로 보게 되는 것은 긴 시간에 걸쳐 무수히 많은 세력들에 의해 성장·발전한 것이라고 포너는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포너는 『불길 속의 시련』 전체를 통해 링컨의 반노예제 사상이 흑인의 자유와 해방에 대한 그의 자율적이고 고귀한 정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에게 여러 경로로 압력을 가한 외부의 세력과 작용으로부터 발전해 온 결과라는 것을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외부 세력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것으로 포너는 우선적으로 노예폐지론자들을 꼽는다. 이들의 세력은 당시 정당제도 밖에서 즉각적인 노예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들이었다. 포너는 링컨의 반노예제 사상을 이러한 노예제도폐지론자들과 이들의 주장을 정책에 반영하려 했던 급진적인 공화당원들이 벌였던 광범한 정치운동의 문맥 속에 두었다. 그 결과 포너는 링컨이 노예제도는 반대했지만, 결코 노예제도폐지론자이거나 급진적 공화당원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노예제도에 대한 링컨의 본래 입장이란 노예제도를 잘못된 제도라고 믿으면서도 그 자연적인 소멸을 단지 기대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기껏해야 점진적인 노예해방과 노예들의 해방 시 노예주들에게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계획을 선호하였다

6) *Ibid.*, p. 3.

는 것이다. 그리하여 포너는 노예제도를 비롯하여 흑인 인종에 대한 링컨의 입장이 당시의 프레더릭 더글러스(Frederick D

ouglass)나 웬델 필립스(Wendell Phillips)와 같은 노예제폐지론자들 혹은 찰스 섬너(Charles Sumner)와 같은 급진적 공화당원들의 단계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포너는 자신의 책에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비롯하여 노예와 해방흑인들이 만든 당시의 정치사회적 문맥을 강조하며, 링컨의 반노예제 사상은 이 문맥의 산물이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링컨의 위대성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포너는 “링컨의 위대성이 갖는 특징은 성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주장한다.⁷⁾ 우리는 한 개인의 사상이란 그 개인의 개성과 경험이 사회와 지적 전통 속에서 작용할 때 형성된다고 짐작한다. 그 형성과정은 복잡하고 신비스러운 것이다. 링컨의 반노예제도 사상을 연구함에 있어서 포너가 보여 준 접근방법은 기존의 어떤 연구보다 그 복잡한 과정을 잘 분석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지나치게 문맥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링컨의 사상과 정신을 문맥의 소산 정도로 폄하시키고 말았다. 어떤 의미에서 링컨 사상의 끊임 없는 변화는 그가 정치의 복잡한 현실과 그 현실에 내재한 권력의 이중적 의미를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링컨의 사상은 포너가 서술하고 있는 실체보다는 훨씬 자율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포너의 역사서술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에게 역사는 어느 한 시점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고 흐름이다. 따라서 그가 연구하는 역사는 고립적이고 정체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관계적이며 역동적인 것이다. 그가 다루는 역사의 과정은 단순히 몇 개의 흐름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다양

7) *Ibid.*, *The Fiery Trial*, p. xix.

한 세력들이 서로 부딪치고 갈등하는 실체인 것이다. 그리하여 포너는 가능한 한 많은 세력들, 특히 미국역사 서술의 역사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세력들을 역사의 중심에 위치시킴으로써 그들의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실체를 드러내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그의 최근작인 『불길 속의 시련』은 가치 있는 저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풀리처상을 비롯하여 밴크로프트상 및 링컨상을 수상하며 미국학계의 호평을 받았다.